

< 학 습 지 도 안 >

2019 학년도 봄학기(1 주차) 2 월 23 일 백두반 남 일 교장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 한글날 제 573돌이 되는 해

| | | | | |
|-----------------------|---|--|-----|----------------|
| 단원 명(과) | 백두반/졸업반 봄학기 수업 제 1주차 | | | |
| | 문법·관용표현·읽기와 쓰기 및 발표하기 | | | |
| 교재 | 조선시대 역사2·알쏭달쏭 헛갈리는 맞춤법 & 한국한자검정 6, 7급 | | | |
| | 한국문화/역사 100선·SAT한국어 문제(어휘력 & 읽기 강화)·시사관련 자료 | | | |
| 본시 지도 목표 | 말하기 | 옛따귀역(조선시대-2) 수업 및 문제풀기 | | |
| | 듣기 | 조선시대(2부) 문화와 인물에 관한 얘기 나누기 | | |
| | 읽기 | 漢字 공부를 통한 우리 문화 및 역사 심터 | | |
| | 쓰기/숙제 | 한자 7급(16) 및 한영·영한 번역대회 준비(3.1운동 1백주년 관련) | | |
| | 기타 활동 | 2명씩 팀으로 나뉘서 진행하고 발표로 마무리 함 | | |
| 지도 내용 | | 시간 | 평 가 | |
| 1교시 | 보조교사(1주차) | | 1시간 | 2~3월 반장 이상재 |
| | 배정된 각 반에서 보조교사로 봉사 | | | |
| | | | | |
| | | | | |
| | | | | |
| 2교시 | 3월 2일 제 13회 한영·영한 번역대회 준비 | | | |
| | | | | |
| | | | | |
| | | | | |
| 3교시 11:20 12:00 | 3.1운동과 임시정부 태동 & 관련 자료 공부 | | | |
| | 졸업생 필수 제출 한글 작문 점검 | | | |
| | 마무리 및 과제물 배부 | | | |
| | | | | |

제안 및 필요사항/Suggestion & Request

다음 주 공부할 내용: 7가지 한글/영문 에세이 제출: (예)세종대왕 한글

백두반 한글 작문 제목 및 제출 기한 (졸업기준이므로 준수할 것)

* 백두반 기본 한글 작문 제목 및 제출기한 (작문은 Letter size 에 2 페이지 정도)

- 1) 내가 좋아하는 한국음식 (10 월 20 일까지 제출)
- 2) 내가 좋아하는 한국의 문화와 음악 (11 월 17 일까지 제출) ← 제출 확인
- 3) 내가 기억하는 전래동화 얘기 (12 월 15 일까지 제출) ← 제출 확인
- 4) 남한과 북한의 현재, 전쟁과 평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 월 12 일까지 제출)
- 5) '기후변화'에 대해 나의 생각을 얘기해 본다. (2 월 23 일까지 제출) ← 제출 확인
- 6) 나의 미래,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 7) 졸업 Speech (4 월 20 일까지 제출)

(지난 주 1월 19일) 출석/숙제/보조교사 시간 및 Point 합계

| 이름 | 김준영 | 이상재 | 이유진 | 최정완 | 허 솔 | 결과 |
|---------------|------|-----|-----|-----|------|----|
| 출석 | - | 1 | 1 | 1 | - | |
| 출석(P) | 10 | 12 | 12 | 9 | 10 | |
| 숙제 | - | 1 | 1 | 1 | - | |
| 숙제(P) | 9 | 10 | 10 | 8 | 8 | |
| TA | - | 1 | 1 | 1 | - | |
| TA(합) | 10.5 | 12 | 14 | 9 | 10.5 | |
| Project | - | - | - | - | - | |
| Project Total | 7 | 12 | 6 | 7 | 8 | |

| * 백두반 '19 졸업반의 보조교사 봉사 계획표/2019 봄학기 | | | | |
|-------------------------------------|-------|-------------|--------|-----------|
| | 학생 이름 | 보조교사 시간 | 학급 이름 | 교실 번호 |
| 1 | 허은빈 | 10:30~11:20 | 봄반 | RM 105 |
| 2 | 최정완 | 10:30~11:20 | 여름반 | RM 107 |
| 3 | 이유진 | 10:30~11:20 | 가을 1 반 | RM 142 OW |
| 4 | 이상재 | 10:30~11:20 | 가을 2 반 | RM 152 OW |
| 5 | 김준영 | 10:30~11:20 | 겨울반 | RM 143 OW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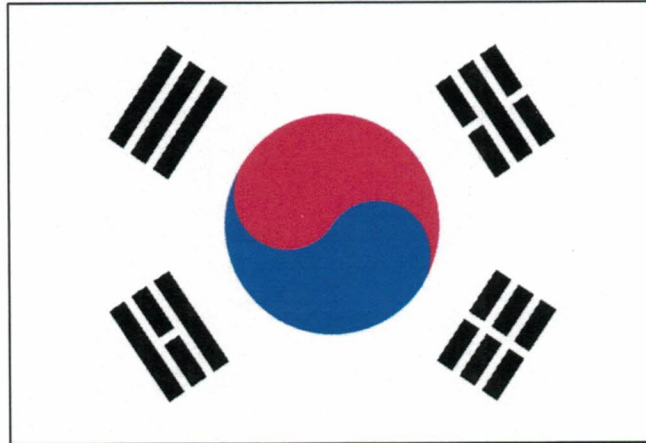
| * 백두반 반장(Class Captain/Prefect) 리스트 | | | |
|-------------------------------------|------|-------|------|
| Month | NAME | Month | NAME |
| 2018 년 9 월 | 이상재 | 2-3 월 | 이상재 |
| 10 월 | 이유진 | 4 월 | 이유진 |
| 11 월 | 허 솔 | 5 월 | 허 솔 |
| 12 월 | 김준영 | 6 월 | 김준영 |
| 2019 년 1~2 월 | 최정완 | 6 월 | 최정완 |

| * 백두반 졸업 사진 촬영 일정 및 졸업생 발표연습 * | | | |
|--------------------------------|----------|--|--|
| 5 월 4 일 (1 차) | | | |
| 5 월 12 일 (2 차) | | | |
| 졸업식 발표연습 | 4 월 20 일 | | |
| | 5 월 4 일 | | |
| | 5 월 12 일 | | |
| | 5 월 19 일 | | |

역사 교육 1/15 (3.1 운동 1 백주년과 임시정부 수립)

→ 아래 글을 읽고 영어로 번역해 보세요.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 주년 기념



우리나라의 국호가 뭐죠?

네 맞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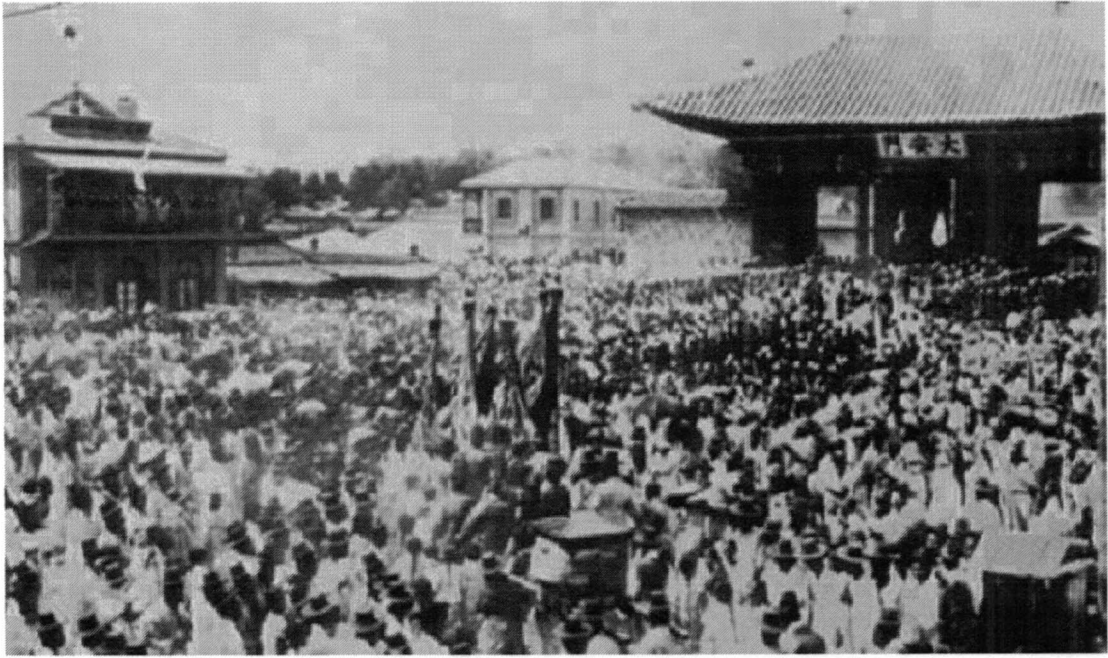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언제 탄생했는지 혹시 아세요?

자, 그럼 알려드리죠.

지금으로부터 백년 전 1919 년 4 월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부터인데요. 임시정부는 아시다시피 삼권분립의 기초한 민주 공화제를 채택합니다. 즉,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대한 제국’, 그 제국에서 ‘민국의 시대’로의 전환. 즉,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갖는 그 시대의 막을 드디어 열게 된 것입니다.

2019 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 주년이 되는 해 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뭘까요? 네, 바로 3.1 운동입니다.

3.1 운동 이후의 독립 운동을 체계적으로 이끌 지도부에 필요성이 개연되었고 이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일 운동은 일제 강점기 민족 최대의 독립 운동을 넘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1 운동 당시 탑골공원

3 월 1 일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 운동은 삼시간에 전국으로 퍼져 나갑니다.

전국의 주요 도시 뿐만

아니라 소규모 도시와 농촌

지역까지 확산 됐죠.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한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 밖에서도

만세 함성이 이어집니다.

시위는 무려 석달 동안이나

계속 되었고 무려 200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만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3.1 일 운동으로 시작된 이

독립만세운동에는 몇 가지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다.

둘째 신분이 따로 없었다.

셋째 국경이 따로 없었다.



특히, 이 3.1 운동은 우리에게 독립에 대한 열망과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3.1 운동 이후 다양한 사회 운동과 조직이 성장하는데요, 이러한 사회운동이 나온 유산은 약 100 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호!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죠.

3.1 운동으로 시작한 이 독립운동은 움직임은 각 분야별로 각계 각층별로 정말 나뉘어서 활발히 움직이게 되는데요.

특히 국내에서 학생운동, 여성운동, 소년운동, 민족문화 수호운동 등 정말 다양한 사회 운동이 펼쳐지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그중 ‘소년운동’하면 누가 떠오르세요?그렇죠, 소파 방정환 선생입니다.
이 방정환 선생을 중심으로 펼쳐지는데요.



그전까지 어린이는 어른의 종속물?

사실 독립적 인격과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정환선생이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며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강조했고 드디어 1923 년 ‘어린이날’을 제정합니다.

아! 삼일운동 이후 사회 운동, 어린이날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네요.

자, 이번엔 10 월 9 일 한글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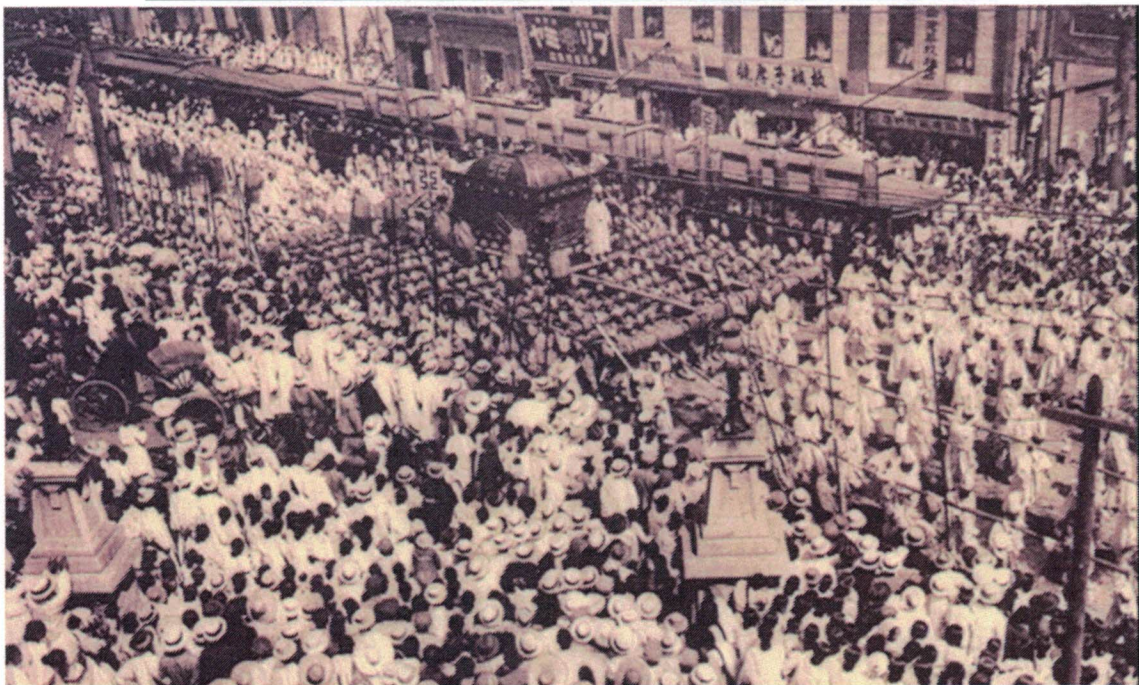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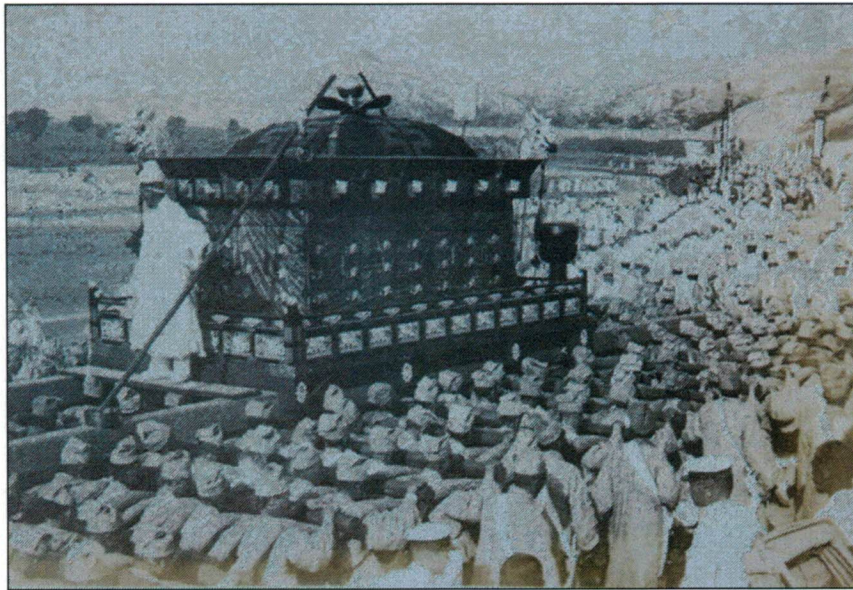
이 날도 역시 3.1 운동 이후인 1926 년 당시 조선어연구회가 중심이 되어서 훈민정음 반포 480 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을 가졌고 그날 ‘제 1 회 가갸날’로 정한대서 비롯된 것이다.

한글날이 아닌 가갸날로 정한 것은 당시 한글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가갸거겨 나냐너녀 이런식으로 전파돼서 한글을 가갸거겨 날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 10 월 9 일 한글날과 3.1 운동이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3.1 운동은 학생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 놓았습니다. 이 3.1 운동으로 우리 민족의 저항을 확인한 일제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십 년 내 광폭한 무단통치를 포기하고 소위 이른바 문화통치로 전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10 대들에게 교육기회는 확대 되었구요. 학생 수는 늘어나게 된 것이죠. 이러면서 학생들의 저항운동이 본격화 된 것입니다.

사실 일본은 삼일운동 이후에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되니까 소위 문화통치라는 명복을 내세우면서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교육은 철저하게 일본에 대한 충성심을 기르고 조선을 멸시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일본의 차별 교육과 이를 점수화해서 등수를 매기고 줄을 세우는 교육에 정말 수치심을 느끼고 분노한 학생들이 모여서 비밀동아리를 만듭니다. 여기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독립에 대한 의지를 키워 간 것이죠.



그 의지가 폭발한 사건이 바로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장례식.
 이때 대규모 독립운동에 계획했지만 이를 전 지도부들이 모두 체포되면서 결국
 수포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반전, 수포로 돌아갈 뻔 했던 이 날의
 대규모 독립운동을 학생들이 주도하면서 6.10 만세 운동으로 성공시킵니다.

빛나는 학생들의 저항의 전통은 이후 광주학생 항일운동으로 이어지죠.
1929년 광주와 나주 지역의 학생이 주체가 되어 시작된 항일운동이 다시 한 번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3.1 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쟁은 이렇게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9년 11월 3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시작된 이 날을 지금은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죠.
3.1 운동으로 시작된 역사 속 주체로서의 학생, 그 모습은 광복 후 현대사로
이어져 4.19 혁명의 도화선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3.1 운동은 참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고 많은 사람들을 성장시켰습니다.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 모여서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던 그 때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 날에 자신들의 외침이 1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이토록 울림으로 이처럼 큰 파장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금도 역사가 되고 있을 겁니다. 3.1 운동이 만든 독립과 민주주의의
열망을 우리도 지금 쓰고 있으니까요.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